

		보도자료	
		배포일시	2019. 4. 5.(금) / 총 3매(본문1)
담당 부서	KIND 전략기획본부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실장 고준석, 팀장 박종원 • ☎ (02) 6746-7352
보도일시		2019년 4월 5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KIND-KOPIA 간 양해각서(MOU) 체결

**KIND(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), 우리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
활성화를 위해 KOPIA(한국플랜트산업협회)와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**

□ KIND(사장 허경구)는 4월 5일 IFC 3 50층 대회의실에서 한국플랜트 산업협회와 플랜트 분야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* KIND (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&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, 한국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)

□ 양 기관은 우리기업의 해외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▲해외플랜트 프로젝트 정보의 교환 및 획득을 위한 상호 협력 ▲ KIND 발굴 프로젝트에 해외플랜트 기업의 참여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지원 ▲ 해외플랜트 시장 조사 및 공동 연구 ▲ 해외 협력거점 사무소의 상호 활용 ▲ 해외플랜트 시장개척단 파견 및 발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.

□ 허경구 사장은 KIND는 지난해 6월 창립이후 국내외 유관기관과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면, KOPIA와의 협력으로 우리기업의 해외투자사업 진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.

첨 부 : 1. 관련 사진 1부

1. 추진배경 및 경위

◆ 투자개발형(PPP) 발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도급방식에 익숙한 우리기업은 정보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해 PPP 진출에 소극적
 ⇒ PPP 사업 각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지원공사를 설립하여 우리 기업의 PPP 역량 보완·강화

□ (추진 배경) 신흥국을 중심으로 민·관 협동(PPP) 인프라 사업이 확대되는 등 해외 건설시장이 급격히 변화

* 신흥국 투자개발사업 시장 규모(WB): '05년 403억불 → '15년 1,199억불(약 3배)

○ 우리 기업은 PPP 진출 확대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·역량 및 효과적인 지원 정책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적 저조*

* 세계 PPP 시장에서 우리기업(14억불)이 차지하는 비중: 1.15%('15년)

○ 반면 중국, 일본 등 경쟁국은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수주 지원 정책('국가대항전')을 바탕으로 PPP시장에 활발히 진출중

* 특히, 프랑스(Egis), 카타르(Nebras Power), 일본(JOIN) 등 일부 국가는 PPP 사업 지원기구를 설립하여 발 빠르게 대응 중

⇒ 우리기업의 해외 PPP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원 정책을 연계·확대하고 프로젝트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기구 설립

□ (추진 경위)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지원기구 설립 의결('17.1.4), 세부 설립 및 운영방안 논의('18.1월)

○ (법적 근거 마련) 「해외건설 촉진법」에 지원공사 설립 근거 마련

* 개정안 발의(전현희의원, '17.6월) → 상임위 및 본회의의결('17.9월) → 국무회의 및 공포('17.10월) → 시행령 개정안 차관·국무회의 의결 및 시행('18.4.25)

2. 지원공사 주요 역할

- (주요 업무) G2G를 통한 프로젝트 발굴부터 사업 개발지원, 금융 지원에 이르는 PPP 사업 전 단계를 유기적·전문적으로 지원
 - (사업 발굴*) 고위급 수주지원 참여, 상대국 인프라 중장기계획 및 정책에 대한 기술 검토를 통해 사업 수요 선제적 발굴·제안
 -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·분석하여 수주에 활용
 - * G2G, 자체 발굴, 민간 제안사업 등을 토대로 대상사업 발굴(단기~중장기)
 - (개발 지원) 금융, 법률, 인프라 엔지니어링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비·본타당성조사 비용 지원
 - 분야별 전문성과 노하우, 정보력을 활용하여 사업 구조 설계, 외국 정부 및 발주처와의 사업조건 협상 등도 지원
 - * KIND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사전 타당성조사 수행 후 국토부 위탁사업 (F/S 등)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 개발 지원
 - (금융지원) 대출 주선, 정책성 펀드 또는 글로벌 국부펀드 투자 연계 등을 통해 민간의 재원 조달 부담 완화
 - 필요시 지원공사의 공신력을 활용, 민간보다 낮은 비용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사업성 보장을 위한 투자 실시
 - * KIND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 이내에서 차입·채권발행 가능

